

일간지 북색션, 누가 어떻게 만드나

신문별로 개성 있는 지면 구성 위해 애써...

전문기자 부족과 서평집단 부재가 문제

북색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과 2~3년 사이에 일간지들이 제작하기 시작한 북색션은 출판계의 발전과 독서 시장 확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차별성 없는 '붕어빵 지면' 과 보도자료 및 머리말에 기댄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북색션 기자들은 지금의 열악한 제작 시스템에서 벗어나야만 밀도 있는 북리뷰 지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3대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매주 토요일마다 북색션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신문이 북색션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사이의 일이다. 북리뷰 지면은 1997년 《문화일보》가 네명의 전담 기자로 8면짜리 지면을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999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북색션을 만들었고, 2000년 《중앙일보》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간지들의 북색션 제작 경쟁이 본격화됐다.

매주 화요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현재 8면 이내로 발행되는 국내 일간지 북색션의 인적 구성은 3~5명 정도다. 팀장을 포함해 《조선일보》는 다섯명, 《동아일보》는 네명, 그리고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세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북색션만 맡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자들이 본지의 문화면 기자도 '겸업' 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의 북색션 제작은 매주 화요일부터 시작된다. 화요일까지 들어온 책들을 쌓아놓고 어떤 책을 실을 것인가, 누구에게 서평을 맡길 것인가, 각 책들을 어떤 크기로 다루는 것이 적합한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회의에 기자들이 들고 온 책은 일차적으로 '체를 쳐서' 걸러진 것들이다.

책이 결정되면 화요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청탁에 들어간다. 서평자가 청탁을 수락하면 대부

분의 경우,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로 서평자에게 책을 보낸다. 마감은 금요일 오후 5시. 그러니까 늦어도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까지는 원고가 들어와야 한다.

북색션에 소개되는 책들은 인문·역사서에서 문학·사회·예술서, 그리고 어린이 책까지 다양하다. 일주일에 소개되는 책은 18권에서 20권 정도. 뚜렷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마다 전담하는 기자가 따로 있다. 대학의 전공을 고려해 각자 적합한 분야를 맡는다.

완성도 높은 서평을 위한 다양한 모색

북리뷰 편집 방식은 각 신문마다 다르다. 전문 필자들의 외부원고 위주로 제작되는 북색션도 있고 기자들이 서평과 북리뷰의 대부분을 쓰는 신문도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서평 위주로 제작하는 북색션은 《조선일보》〈Books〉다. 〈Books〉는 문학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부필자들의 서평으로 채워진다. 이에 대해 승인배 팀장은 "밀도 높은 서평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한 기자가 여러 분야의 책을 리뷰한다면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북색션을 읽는 독자는 제한돼 있다. 책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들이 주로 본다. 그들은 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원한다. 전문가들이 쓴 서평은 기자가 쓴 것보다 그 책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북색션에 비해 경제·경영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과 '해의 서평'란을 통해 해외 출판계 동향과 지적 흐름도 활발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Books〉의 특징이다.

《동아일보》의 북색션인 〈책의 향기〉는 외부필자의 서평과 기자들이 쓰는 원고가 50대 50 정도의 비율이다. "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광표 팀장의 설명이다.

"기자가 써야 할 책이 있고 전문가가 써야 할 책이 있다. 전문가들에게 서평을 맡기면 너무 '전문적인' 원고를 써 오는데,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들에게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의 경우 기자들이 직접 쓰고 있다."

이광표 팀장은 〈책의 향기〉가 자연과학 분야의 책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신문의 북색션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책은 문학서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문학서만 책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중앙일보》〈행복한 책읽기〉는 주로 기자들이 리뷰를 맡는다. 조우석 팀장은 본격적인 리뷰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신문에 적합한 짧은 글을 쓸 수 있는 외부필자를 구하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외부필자들의 서평을 받을 경우,



현재 발행되는 국내 일간지들의 복색선은 완성도 높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책의 향기> 이광표 팀장, <문화일보 복리뷰> 배문성 팀장, <Books> 승인배 팀장.

출판사에 물어보고 역자나 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주례사 서평'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이례서는 비평적 관점을 확보하기 힘들 뿐더러, 제대로 된 서평이 나올 리 만무하다."

<행복한 책읽기>는 판타지 같은 대중적인 출판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우석 팀장은 "독자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출판물에 대한 엄숙주의가 팽배해 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책과 복색선에 소개되는 책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문화일보 복리뷰> 역시 주로 기자들의 리뷰 기사로 채워진다. 이에 대해 배문성 팀장은 "외부 필자를 동원할 경우 신문이라는 매체에 맞는 탄력성 있는 글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실는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배문성 팀장은 "신문의 기능 가운데 비판기능이 있다. 따라서 책에 대한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함양미달의 책을 가려내는 것도 복색선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한다. 일례로 지난 2000년 11월 15일자에는 철학자 이정우씨의 《시간의 지도리에 서서》(산해)를 "들뢰즈 해설서라고 해야 할 책을 자신의 발언인 양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다른 복색선에서 호평받았던 책이다.

복색선 제작 방향에 대한 자기반성도 있어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복색선이 신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금의 복색선 제작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조우석 출판팀장은 <책과 사람> 2001년 1월호에 쓴 <복색선 다시 시작하자>는 글에서 각 일간지의 복색선이 서평 저널리즘다운 진정한 차별성과 수월성(秀越性)을 찾아보기 힘든 '붕어빵 복색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지적대로 각 일간지들의 복리뷰를 비교해 보면 크기나 위치가 다를 뿐, 소개되는 책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이광표 팀장은 "복색선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출판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주일 동안 신문사로 들어오는 책이 50~60권 정도 되지만 그 가운데 소개할 만한 책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들 책을 신다 보면 각 일간지 복색선의 지면이 비슷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승인배 팀장 역시 지금의 복색선이 서로 닮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한다. 복색선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같은 세대며, 따라서 책을 고르는 안목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복색선 제작 방식과 열악한 인적 구조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복색선 발행 간격은 일주일인데, 휴일을 제외하면, 책을 정하고 서평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6일 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서평자들은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전 서평 대상이 되는 책을 받고 금요일까지 서평을 써야 한다. 즉, 복색선에 실리는 대부분의 서평은 하루나 이틀만에 써어진 글이라는 것이다.

기자들이 쓰는 원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글

쓰기를 '훈련 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일주일 안에 서너권의 책을 읽고 원고를 써내는 일이 벅찬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보도자료와 머리말을 참조해 기사를 써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조우석 팀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출판산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책임감 있는 리뷰를 위해 10명 정도의 기자가 필요하다. 기자들은 일주일에 한두 꼭지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배문성 팀장 역시 "지금의 복색선을 기자 서너명이 꾸러가기에는 힘들다"면서 "지금과 같은 복색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보충되고 좋은 서평을 써 줄 수 있는 필자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색선은 신간만을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신간의 범위를 출간된 지 3개월 이내의 책으로만 확대해도 다양하게 지면을 꾸밀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만큼 책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한층 깊이 있는 서평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화면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복색선이 '독립'한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리뷰는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것이 복색선 팀장들의 자평이다. 그리고 각 신문별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완성도 높은 서평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한계에도 복색선이 우리 출판계와 독서시장에 여러모로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발전은 언제나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금의 복색선 제작 형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외부의 '돌팔매'에 의한 강압적인 반성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전제된, 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 최갑수 기자